



IFRS 18 도입이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손익 분류로 인해 지주회사 영업이익 감소 예상

▶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4월 9일,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새로운 기준인 IFRS 18 최종안을 공표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은 4월 15 일에는 투자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16 일에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식 공시 기준이 대폭 개정된 IFRS 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했던 국내 지주회사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FRS 18 상 손익계산서 구조]

매출(수익)	영업 손익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판매비, 연구비, 일반관리비	
-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 유·무형자산 처분 손익	
+ 기타 영업수익	
- 기타 영업비용	투자 손익
= 영업이익	
±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손익	
± 금융자산 평가 손익	
+ 배당이익	재무 손익
±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처분 손익	
=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이자 손익	
- 퇴직급여 및 충당부채의 할인액 상각	
=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경과 및 내용

지금까지 IASB는 영업이익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 이는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여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영업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낮은 비교가능성, 경영진의 자의적인 활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IFRS 18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영업이익을 명확히 정의하기로 하였다. 좌측 표를 보면, IFRS 18은 영업이익을 투자 손익과 재무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 이익으로 집계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내에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별도의 영업이익으로 정의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 왔고, K-IFRS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했던 여러 기타손익 항목들이 IFRS 18에서는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되어,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IFRS 18 도입이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IFRS 18 도입으로 인해 지주회사의 손익계산서도 현행과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IFRS 18은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이 아닌 투자손익으로 분류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상장 지주회사는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 보유에 따른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포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사업 목적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계열회사들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인 만큼, 지분법 손익도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IFRS 18에 따라 새롭게 손익을 분류하게 되면 지분법 손익이 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경과 및 내용

제정 경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는 지난 4월 9일,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새로운 기준인 IFRS 18 최종안을 공표하였다.

이와 관련, IASB는 4월 15일에 투자업계(국내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리서치 부서 애널리스트 5명)와의 간담회를 통해 손익계산서의 세 가지 범주(영업·투자·재무)별 손익의 구분 표시, 영업손익 정의의 변경,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비교가능성, 가치관련성, 정보의 연속성, 정보 가공비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새 기준서인 IFRS 18을 국내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적인 대비를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코스파·코스닥 금융기관 등 약 500개 기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제정 내용 지금까지 IASB는 영업이익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이는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여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영업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같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간에도 영업이익의 산출 방식이 달라 영업 성과의 기업 간 비교는 물론 국제적 비교도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경영진이 조정 EBIT 혹은 조정 EBITDA와 같이 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성과측정치(Non-GAAP Measure)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고 강조하는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IFRS 18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영업이익을 명확히 정의하기로 하였다. [표1]에 따르면, IFRS 18은 영업이익을 투자 손익과 재무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 이익으로 집계한다. 아울러, 경영진이 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성과측정치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영진 성과측정치(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 이하 ‘MPM’)에 관한 정보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성과측정치 중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항목과의 조정 내역,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외부감사 대상에도 포함된다.

IFRS 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재무제표 표시’를 관장하는 IAS 1 기준을 대체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되는 만큼 국내로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표1] IFRS 18 상 손익계산서 구조

	매출(수익)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판매비, 연구비, 일반관리비	영업 손익
-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	유·무형자산 처분 손익	
+	기타 영업수익	
-	기타 영업비용	
=	영업이익	
±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손익	
±	금융자산 평가 손익	
+	배당이익	
±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처분 손익	
=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이자 손익	재무 손익
-	퇴직급여 및 충당부채의 할인액 상각	
=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자료: IASB, IFRS Advisory Council, 자본시장연구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우리나라는 상기와 같은 IASB의 기준 제정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2012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내에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별도의 영업이익(이하 'K-IFRS 영업이익')으로 정의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간 영업 성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성과측정치 외에 대안적인 성과측정치를 활용하는 기업이 드물어, 현재로서는 MPM의 주석 공시 및 외부감사 필요성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잔여 범주로서의 영업이익(이하 'IFRS 18 영업이익')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오랜 기간 활용해 온 K-IFRS 영업이익과 그 금액 및 속성이 다르다. 유·무형자산 처분손익, 각종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K-IFRS에서 영업 외손익으로 분류했던 여러 기타손익 항목들이 IFRS 18에서는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되므로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IFRS 18 도입이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IFRS 18 도입으로 인해 지주회사의 손익계산서도 현행과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IFRS 18은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이 아닌 투자손익으로 분류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상장 지주회사는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 보유에 따른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포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사업 목적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계열회사들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인 만큼, 지분법 손익도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IFRS 18에 따라 새롭게 손익을 분류하게 되면 지분법 손익이 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표2] 현행 국내 지주회사 연결손익계산서 예시

	제N기	제(N-1)기	제(N-2)기
매출및지분법손익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제품및상품매출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용역매출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건설형계약매출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지분법손익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기타매출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매출원가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매출총이익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판매비와 관리비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영업이익(손실)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금융수익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금융비용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기타영업외수익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기타영업외비용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계속영업법인세비용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계속영업이익(손실)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중단영업이익(손실)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당기순이익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